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8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6. 지난 이레 동안에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끈적이는 장마에 지친 우리에게 시원하고 산뜻한 성령의 바람 한 줄기 불어주십시오. 불쾌한 날씨로 말미암아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과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일상과 사랑으로 섬겨야 할 가까운 이들에게 더욱 그리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편협한 자아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렁찬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과 자신의 능력은 너무 작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지금 찾아가 마음을 같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롬8:33-34 인도자

♠ 교 독 문 18. 시편 67 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이명희 집사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함께

성경봉독 I. 막3:22-35 인도자

II. 사58:6-12 장영숙 전도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예수연대 김재흥 목사

II. 어둠 속의 빛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현신의 찬송 350.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다함께
- 헌금봉헌 연주: 브라스 밴드 동호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신만 바라보며 살면 바른 길을 잃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사십시오. 이웃의 작은 고통 하나 함께 나누는 것에 구원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 제자리에 주저앉아 주위의 어두움을 탓하기만 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작은 촛불 하나 밝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눔과 섬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의 맥 / 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
기도 : 하현철 권사	기도 : 박미영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박정숙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유혜경 집사

7월	영접위원	김철수	김인걸	최철수	배상순	박애순	권미숙
	헌금위원	한상익	김용진	이인웅	구명자	안정숙	백혜숙

쓰라린 복음

한국 교회의 전도 열성은 대단하다. 전도를 위해 고구마처럼 찢러도 보고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라고 열심히 가르친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전도 폭발이다 총동원 주일이다 새신자 초청 잔치다 뭐다 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해마다 기독교의 성장세가 줄더니 작년부터는 아예 기독교 신자의 절대 숫자까지 줄어들었다. 이제는 새로운 신자들이 생기는 것보다 기존의 신자들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니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밀 빠진 독이 된 셈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고 전도했고, 이 세상의 출세와 안일을 추구하면서 남들에게는 천국의 영생 복락을 얻으라고 설교했으며, 스스로도 구원받은 자다운 감사와 보답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으니 그 전도와 선교가 무슨 힘이 있었겠는가? 한국교회는 효험을 믿지 못해 자신도 믿지 않는 약을 파는 약장사나 자신은 가입하지도 않을 보험을 남에게는 들으라고 종용하는 보험사원처럼 몰락할 운명이었다. 지금 전도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다. 진실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라도 그렇게 믿을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믿는 척 했던 거짓된 신앙을 청산하고 겸허하고 용기 있게 비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신앙이요 ‘현실적인’ 신앙이라고 여겨왔고 거짓된 신앙의 공범들이 되어 나쁜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나와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가며 자신들의 위장된 신앙을 지켜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가증스럽고 혐오스런 가면 무도회장으로 내주어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전도가 아니다. 그 과제란 지금까지의 믿는 척 해왔던 거짓 신앙을 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어 진심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일이다.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척 했던 위선을 내려놓고 진짜 십자가를 지자.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척하지 말고 진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자.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공허한 주문만을 반복하여 외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자.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삶 자체가 증거가 된다. 많은 교회들이 영혼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더 큰 교회를 만들어 교세를 확장시키려는 지극히 세속적인 목적으로 전도를 서둘러왔고 교인들은 강박적으로 전도를 해야만 한다고 세뇌되고 학습되어 왔다. 그 결과 많은 교인들이 증거할 내용이 없는 증인이 되어 본인 자신도 믿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전도하기 위해 거리를 나서게 된 것이다. 그것도 때로는 몹시 무례하게 타인의 삶을 침해하는 것을 불사하면서까지...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삶, 우리의 행동과 말이 총체적인 증언이 되기 위해 이제 우리는 맹목적인 전도의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운다”는 본회퍼 목사의 말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죽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께 집중하자.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다(마10:21). 영생을 위한 준비는 ‘빈손’이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빈손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 밤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천국 가는 길에서는 꼴찌가 되고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보다 윗사람이 되는 재미있는 드라마가 연출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그들에게 알려주는데 역시나 대다수는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널리 알려주자. 영생을 얻으려면 빈손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이 쓰라린 예수의 복음을.

(송강호, <<개척자들>> 2007년 5월 호 중에서)

임오년의 기도

권정생

눈오는 날/김영동이 걸어가다가
파당 하고 뒤로 자빠졌으면/속이 시원하겠다.

오월 달에/최완택이 산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가랑이 찢어졌으면/되게 고소하겠다.

칠월칠석날/이현주 대가리에 불이 붙어
머리카락이 다 탈 때까지/소방차가 불 안 꺼주면/돈 만원 내놓겠다.

올해 ‘목’자가 든 직업 가진 몇 사람/헌병대 잡혀가서
끈장 백대 맞는다면/두 시간 반 동안 춤추겠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모두 정신차려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기도하옵니다./아멘.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지난 5월 17일 세상을 떠난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과 절친하게 지낸 목사님들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권 선생님의 속상함이 이 글 속에 해학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목’자 든 직업 가진 사람으로서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윤석철 장혜숙 김근종 정옥영 김준호 곽혜자 김용진 박효선
 김혜권 박병구 이선림 이한림 김명희 이광용 형인순 정완수 김재광
 이성운 권미숙 박애순 무명1

월정헌금:

김정애 김현영 정원석 김승현 김수진 박병구 박석희 박옥순 송임희
 이정은 하정석 이명희

감사헌금:

한상의 정영선 박효선 김용진 유경순 오정숙 장미란 무명4

생일감사헌금: 최윤선 **캄보디아 우물헌금:** 최성애 박홍엽 김성자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김재흥 최희영 방문성 박혜경 김종구 박홍엽 이선림 임 영 정경례
 (누계: 85,475,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 혜 숙	장 혜 숙	쉽	쉽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안 정 숙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김 금 순		
빌 립 보	이 형 숙	권 미 숙		
가 버 나 움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7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 **초록가게** :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중고등부실에서 초록가게가 열립니다. 책, CD, 비디오 테잎, DVD, 여름 휴가용품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3. **아름다운 원로 모임** : 25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피자 배우고 사귀는 귀한 기회입니다.
4. **나오미 선교회** : 28일(토)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 고궁으로 나들이를 가십니다.
5. **수양회 준비 모임** : 수양회를 위한 동교회 회장들과 선교회장들, 수양회 준비위원들 회의가 세미나실에서 오후 1시 15분에 있겠습니다.
6. **100주년 팀장 모임** : 오후 집회 후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팀장들은 보고 내용을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7. **교육부 회의** : 교회학교 1학기 정리 모임이 오후 집회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8. **별세** : 고숙이 집사의 부군 박정석 성도가 지난 16일 별세하여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9. **신앙실천** :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토요주방봉사(28일): 장혜숙 박혜경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김애경 (남편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